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하는 세상,
"Beautiful ONE" 을 꿈꾸는 원 미니스트리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발달 장애 사역 기관입니다.

In this Issue

From the Pastor

창세기 26:17-18

From the Caregivers

크리스마스 메들리의 시작

From the Parents

해준이의 다이어트 일기
채워져 가는 원미니스트리
마음을 나누는 원미니스트리

From the Precious From ONE Ministry



FROM THE PASTOR

(창세기 26:17~18)



장진원 목사님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셔서 소유가 너무 많아지자
주변 사람들은 질투했고 이삭은 그랄골짜기란 곳으로
이주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중동 지방이다
보니 정착하기 위해서는 물이 절실했습니다. 이삭은
강제로 이주를 당했고, 그에게는 가족과 재산과 종들
과 가축들이 있었습니다. 빨리 물을 찾지 않으면 모두
죽게 되는 긴박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때 이삭은 종들
을 보내 물이 어디 있는지 찾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
습니다.

대신 이삭은 보다 안전한 길을 선택했는데, 그것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는 것이
었습니다.

뒷면에 계속

우리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을 생각합니다. 전문가를 찾고, 돈을 써서 해결하려고 하고, 다른 이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삭이 그런 종류의 시도를 전혀 하지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그가 한 일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했습니다. 아버지가 전에 이 지역에 사신 적이 있었고, 아버지는 물을 찾고 우물을 파는 일에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 시절에 팠던 우물을 다시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삭과 같은 상황에 처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경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문제가 완전히 새로운 것이고 개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따라서 성경으로부터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요즘 뉴스에서 들리는 문제들 예를 들면 폭력, 질투, 우울증, 분열, 전쟁과 같은 것들은 이미 성경에 나온 것들입니다. 과거에 그러했듯이,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고,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물을 찾는 문제가 있었듯이, 이삭에게도 같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삭의 지혜를 주목하면서 과거의 역사에서 들어야 할 말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과거를 돌아보자는 것은 구체적으로 교회를 보자는 것입니다. 과거 교회에 생명력과 능력이 충만했던 시기에 사람들은 교회에 소속되기를 열망했고, 즐거이 기도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했습니다. 기도회에 나오라고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밤새 기도하고 싶어 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일과 성령님이 주신 감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고난을 극복하게 하는 힘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의 떨림과 감동으로부터 왔고, 그것이 세상 무엇보다 귀하게 느껴져서 다른 것과 바꿀 수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결과로 개인이 변하고, 세상이 변화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이 기독교정신으로 세운 이 미국땅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교회의 부흥과 개인의 영적인 충만함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원미니스트리는 발달장애 선교단체입니다. 선교단체라는 말이 의아하게 느껴지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여기에 선교 왔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기에, 또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 저는 저 자신의 경건을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 모두 처지가 다르고 고민거리가 다르시겠지만, 결국 이 모든 일에 치유책은 과거 교회의 부흥시기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과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늘 함께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앞으로 선교단체인 원미니스트리를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며, 믿는 자들에게 힘과 위로를 줄 수 있고, 센터를 찾는 이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날로 나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FROM THE CAREGIVERS

크리스마스 메들리의 시작

황은경 음악 선생님

원미니스트리에서는 일 년 중 하이라이트, 크리스마스 준비가 시작됩니다.

크리스마스 메들리에 맞춰, 각종 타악기로 박자 맞추기, 핸드벨로 멜로디 만들어 내기!

아직 1달도 넘게 남은 크리스마스를 2배로 미리 즐길 수 있는 원미니스트리의 음악 시간!

기쁘다 구주오셨네
고요한밤 거룩한 밤
흰눈사이로 썰매를 타고
참 반가운 신도여
북치는 소년

집에서도 계속 음악을 들려줘서, 우리 친구들에게 아주 익숙한 크리스마스 노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혜준이의 다이어트 일기

이미애(혜준이 어머니)

먹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자 취미이고 오랫동안 앓고 있는 뇌전증때문에 복용하고 있는 약들이 식욕을 증진시켜 체중을 늘린다는 의사의 말이 그럴듯한 이유가 되어 딸이 뚱뚱한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몸무게가 190파운드에 가까워지니까 걸을 때도 숨이 차 혈떡이며 힘들어서 걱정은 했지만 정작 살을 빼야 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일반인도 체중감량은 무척 어려운데 딸애와 다이어트는 도무지 연결이 되지 않았다. 더욱이 내 아픈 손가락 애지중지 딸애가 너무 안스러워서 먹는 것을 제한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하루가 다르게 몸이 비대해지는 모습을 보며 속수무책으로 걱정만 하고 있었는데...

지난해 말 친구가 오랜만에 딸의 모습을 보더니 소스라치게 놀라며 당장 살을 빼 주라는 말에 아이가 살이 찢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열심히 설명해 줬는데도 친구의 대답은 단호했다. “핑계대지마. 살 뺄 수 있어. 내가 너라면 제일 먼저 아이 살부터 빼겠다. 무조건 살을 빼! 혜준이도 여자인데 화장도 하고 치마도 입고 예쁘고 건강하게 외모도 가꾸어 야지. 에미가 그 정도는 해야지... 너는 엄마도 아니야...” 그래도 나는 네가 몰라서 그런 말을 한다고 꾸역 꾸역 반박하며 투덜댔지만 적잖은 충격이었다.

나는 혜준이가 여자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장애라는 프레임에 갇혀 오히려 여성성을 꼭꼭 숨기고 싶었나 보다. 뼈속까지 옳은 말이어서 더욱 나를 찢었다. 친구의 독한 말이 가시가 되어 자꾸만 나를 괴롭히며 떠나질 않아 불편 해하다가 나도 모르게 한번 해보자는 용기가 생겼다. 우선 남편한테 트레드밀로 매일 시간을 정해 운동강도를 조금씩 높여가며 운동을 시켜 달라고 했고 아들에게는 주말마다 공원에 데려가서 2-3마일 정도 뺑 세계 운동을 시켜 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나는 식사관리를 철저히 했다. 세끼의 식사 이외 간식은 모두 끊었다. 새우깡 한알까지도. 밥은 작은 공기로 살살 퍼서 한 공기 반찬은 접시에 따로 주고 밥숟가락도 찻숟갈로 바꿨다. 처음에는 배가 고파 찢찢매며 냉장고에 매달려 뭐든 먹겠다며 떼쓰는 아이와 싸우는 것도 힘들었지만 아이에게 모질게 대하는 나를 몹시 못마땅해 하는 남편 때문에 더 힘들었다. 그리고 여전히 내 안에서 “뭐 이렇게 난리 친다고 될까?” 하는 강한 의심이 걷히질 않았다. 냉장고와 팬트리를 텅텅 비우고 가족들 모두가 먹는 것을 자제했다. 음식대신에 아이가 좋아하는 굿월쇼핑과 선물을 보상으로 꼬셔가며 과장된 칭찬으로 아부도 해가며 식탐의 욕구를 다른 데로 분산하려고 노력했다. 초반에는 엄청 힘들어하던 딸도 가족들의 완강한 기세에 눌러 점차로 자신의 욕구를 줄여가며 포기할 줄도 알게 되고 조금씩 따라 주기 시작했다.



혜준이의 다이어트 일기

이미애(혜준이 어머니)

매일매일 체중을 재고 기록해가며 몸무게가 줄어듦 때마다 함께 탄성을 지르며 기쁨을 나눴다. 가시적인 결과가 있으니 “정말 시도해 보니까 되는구나.” 라는 긍정마인드로 급 전환하여 가족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열심을 냈다. 가족이 뿔뿔 뿔뿔 하나가 된 10개월간의 노력으로 드디어 25파운드 감량에 성공했다. 요즈음 살이 빠지니까 얼굴이 아이돌처럼 작아지고 아빠를 꼭 닮은 매력적인 미모가 한층 돋보인다. 무엇보다도 가족 모두가 협력하여 이루어 낸 결과라서 더욱 기쁘고 감사하고 의미가 있다.

돌이켜보면 나는 혜준이에 관해서는 “뭐든지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 안될거야”라는 부정적인 그릇된 신념으로 가득했다. 엄마인 내가 처음부터 포기하고 시도조차 하지 않거나 조금 해 보다가 역시 안되네 낙심하며 주저앉아서 딸에게는 해볼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음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척 아프고 아이에게 너무 미안했다. 늦었지만 하나님께서 훌륭한 친구를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실천할 힘을 주셨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하나님은 내가 어리석고 둔하고 개념이 없다는 것을 잘 아시기에 언제나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인생에 세밀하게 간섭 하시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 이번의 작은 성공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안에 의심과 부정의 어두움을 걷어 내시고 가능성의 빛을 비추시어 무력한 나에게 자신감을 갖게 해 주셨으니 너무 늦어버렸다고 자책하며 괴로워 말자. 인생에 늦은 때는 없다는 아름다운 교훈을 나의 남은 삶으로 곳곳이 살아 내 보자. 이제부터는 시간을 아껴 엄마하고 날마다 조금씩 뭐든지 해보자. 과정의 땀과 눈물은 너와 나의 몫이고 결과는 온전히 하나님의 몫임을 잊지말고 꾸준히 계속해서 함께 가보자. 아직 끝나지 않은 힘에 겨운 고단한 경주이지만 지금 이순간 이렇게 우리 가족 모두가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음이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큰상이자 복이며 승리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또 내일도 행복하자. 매 순간 순간 엄마가 주안에서 늘 깨어 있도록 힘쓸게... 예쁜 내딸 혜준아.....





나날이 채워져 가는 원미니스트리

정연이네 가정에서 함께 즐길수 있는 "스탬프" 를 도네이션 해 주셨습니다.
하루 하루 우리 친구들이 재미있고 창의적으로 채워가는 시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우네 가정에서 한글 놀이판을 도네이션 해 주셨습니다. 가나다라 글자를 맞춰가며 우리 친구들의 인지능력도 쑥쑥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스탬프



한글 놀이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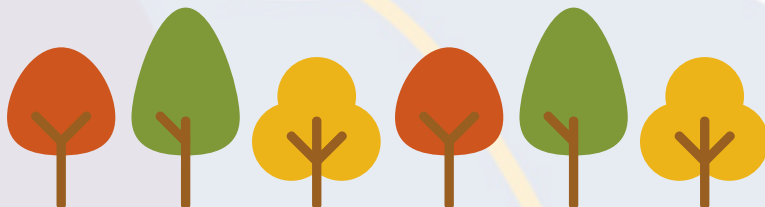
모두의 마음을 모으는 원미니스트리

10월 12일 원미니스트리 학부모님들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원미니스트리에 관계된 (데이프로그램, 꿈글학교) 학부모님들이 Zoom 미팅에 참석해서 좋은 소통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아이들 하나 하나를 내 자식처럼 생각하는 소중한 아이디어들이 모였고, 원미니스트리를 내 가정처럼 생각하는 깊은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간담회에서 나온 제안들입니다. 이 열정적인 아이디어가 한꺼번에 실행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사정과 상황에 맞게 하나씩 이루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 Air-Fyer 를 이용해서 스스로 점심 식사를 준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희망합니다.
- 버려진 가구 리폼으로 의미있는 결과물을 만들어 보기를 바라봅니다. 샌딩 기계나 페인트 작업은 위험하지도 않을 뿐더러, 샌딩 기계의 진동은 아이들의 감각 발달에, 또 페인트 작업은 아이들의 창의성 개발에 도움을 주리라 기대합니다.
- 각 요일에 테마와 집중 과목을 정해서,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에 계획성있게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보기를 기대합니다.
- 식사 후 양치하기 등 좋은 생활 습관 기르기의 시작이 원미니스트리 내에서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From the Precious

경환군이 사진찍기, 캐릭터 앱사용, 컴퓨터에 업로드, 페이지 편집까지 혼자서 해 낸 페이지입니다.



From the Precious

우리 아이들의 모습, 말, 표정,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함께 나눕니다.



서로를 돕는 원미니스트리

가장 어린 민우가 민용이
형의 휠체어를 영차 영차
밀어 주고 있습니다.

원미니스트리 안에서
우리는 그저 똑같은
친구일뿐...

도움을 주는 민우도
형을 도울 수 있어서
웃고 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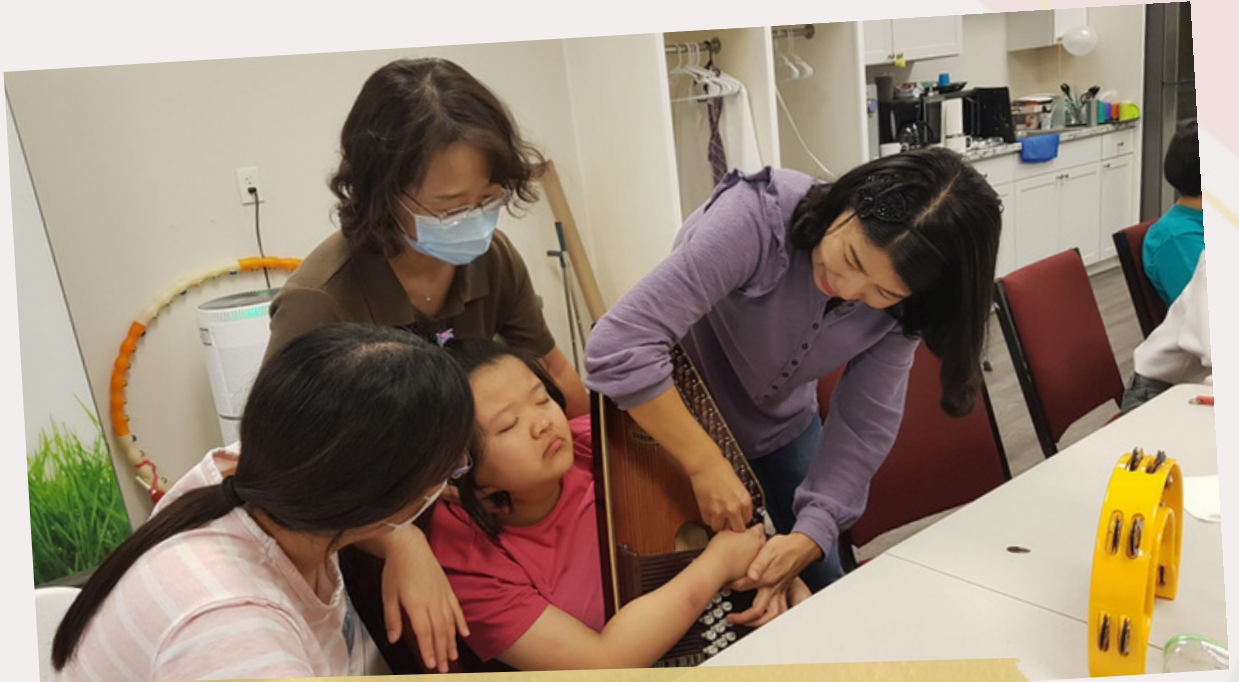
도움을 받는 민용이도
민우가 기특해서
웃고 있는...

우리는 그저 서로를
행복하게 하는 형제!



From the Precious

우리 아이들의 모습, 말, 표정,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함께 나눕니다.



지우는 음악을 온 몸으로 즐기고 있는 것일까요?



나단이와 봉사 학생의 협동 작품!
함께 해서 더 의미 깊은 작품!

From the Precious

파티 호스트, 경환이

우리 아이들의 모습, 말, 표정,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함께 나눕니다.

Shake it, Shake it!

이번 원미니스트리 가을 소풍
에서 특별한 이벤트가 준비
되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
경환이의 특별한 칵테일이
원미니스트리 식구들을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Kyung's Green Hawaii
Kyung's Sunrise

Shake it, Shake it!
칵테일 제작부터 서빙까지..

항상 바쁜 경환이의 발걸음이
한껏 더 바빴던 하루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힘들여 번
돈은 경환이의 이름으로
원미니스트리에 도네이션
되었습니다.

뿌듯한 경환이의 얼굴을
다 담아내지 못한 사진이
아쉽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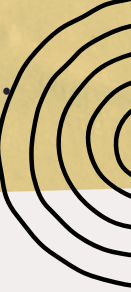
From the Precious

우리 아이들의 모습, 말, 표정,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함께 나눕니다.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게임!

큰 바구니 한 개에서 시작해서...
작은 컵 3개까지 확장!



기도하는 원미니스트리!



From the Precious



우리 아이들의 모습, 말, 표정,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함께 나눕니다.

나단이의 작은 발표회



중창단에서 열심히 연습했던
나단이의 노래 실력이 빛이 나는
무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중간 중간, 노래속에 섞여 있는
나단이의 추임새에 더 크게 웃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단이가 전해준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찬양의 의미가 그 어느 때보다
마음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감동과 뿌듯함을 선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
주셨음이 확실합니다.

정연이의 20번째 생일!

이번 가을 소풍은 정연이의 20번째
생일을 같이 축하해 줄 수 있어
더욱 좋았습니다.
정연이네 가정에서 준비해 주신
맛있는 점심으로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정연아~~ 항상 건강하고,
네가 우리에게 주는 행복만큼
너도 행복하기를 기도할게!



From the Precious

우리 아이들의 모습, 말, 표정,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함께 나눕니다.



날써 다람쥐, 민용이

누가 민용이를 Wheelchair
bound 라고 했나요?

원미스트리에서 민용이는
누구보다 잼싸고,
누구보다 날써,
운동 청년입니다.



그들의 우정!

From the Precious

우리 아이들의 모습, 말, 표정,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함께 나눕니다.



원미니스트리 가을 소풍

물들어 가는 가을 단풍만큼 아름답고,
익어가는 사과만큼 풍요로웠던
소풍을 준비해 주신
장진원 목사님, 김송이 사모님,
황은경 선생님, 김재웅 선생님,
김근희 선생님, 구자은 선생님,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감사드립니다.

모두의 마음에 닿았던 목사님 설교 말씀,
모두를 썰렁한 유머로 웃게한 퀴즈대회,
모두가 쉽고 재미있게 참가한 공놀이,
모두가 혈안이 되었던 보물 찾기,
모두가 같이 터트린 마지막 피냐타까지!

"모두" 가 함께한
원미니스트리의 소풍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진심인
부모님들! ㅎㅎㅎ

11월 원미니스트리 소식입니다.

▶ 원미니스트리 성경 공부 안내입니다.

성경공부를 11월 11일부터 매주 금요일(10-11시)에 센터에서 시작합니다. 매주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연휴기간이나 개인사정이 있으면 격주로 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석대상은 불신자, 교회를 지금 쉬시는 분, 그리고 현재 교회를 다니시는 분 모두 환영합니다.





Contribution

후원자님!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나눔으로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을
꿈꿀 수 있습니다.

10월 후원자님

Sally 성희 김 (\$2000)
↳ (The Good Management)

곽공옥, 서귀애 (\$1500)

장진원 (\$200)

Esther Han (\$50)

이영환, 서현정 (\$375)

혜정 Garcia (\$50)

윤배경, 양미이 (\$200)

서귀애 (\$100)

Lisa Kim (\$120)

두드림 PTA (\$240)

이미경 (\$1500)

Michael Kim (\$1000)

↳ (사랑이네 치과)

최경숙 (\$300)

오경환 (\$40)

구자은 (\$50)

황은경 (\$50)

임형규, 김혜란 (\$800)

↳ (Hev System LLC)

Na Rae Ahn, Sinduk Ahn, Hui Ul Ahn (\$100)

정진이 (\$120)

이영환 (\$84)

후원방법

1. Check 우편 발송

***Payable to: ONE Ministry Atlanta, Inc**
***Send to: 302 Satellite Blvd. Suite #129**

2. 계좌 입금 (Bank of America)

***Account # : 334061943445**

***Routing # : 061000052**

3. Zelle Transfer

온라인 은행 계좌에서

ONE Ministry Atlanta, Inc와
oneministryatlanta@gmail.com을
등록 후 송금.

4. Amazon Smile

Amazon Smile에 **Charity** 후원으로
ONE Ministry Atlanta, Inc를 등록하시면,
구매 금액의 **0.5%**가 자동으로 기부됩니다.

원미니스트리는 조지아주에 등록된 비영리 기관으로
기부하신 모든 금액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ONE Ministry

Newsletter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하는 세상,
"Beautiful ONE" 을 꿈꾸는 원 미니스트리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발달 장애 사역 기관입니다.

ONE MINISTRY CENTER
Director : 장진원 목사님



Tue-Sat, 9am-5pm

A : 302 Satellite Blvd #129
Suwanee, GA 30024
P : 470-350-1094
E : info@one-ministry.com
F : facebook.com/1000770455929
W : www.one-ministry.org

* Office Manager : 구자은 선생님

Main Missions

1.예배 및 선교 사역

*교회 장애인 부서 개설 및 장애사역 지원

2.교육 사역

*원미니스트리 한글학교 : 꿈글학교

*Summer Camp

*주중 프로그램

: Creative Computer, 태권도, 중창단

3.복지 사역

*발달 장애 성인 데이 프로그램

*직업 훈련 프로그램

